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뉴욕복음화대성회성료 진정한 그리스도인 먼저 돼야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뉴욕지부(대표 김승희 목사) 주최로 16일부터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 뉴욕복음화대성회가 19일 집회를 마지막으로 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 2대 총재이자 서울성북교회 담임인 이태희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성회에서 이태희 목사는 1세대 마지막 부

흥사로서 성령의 회복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3일간 이어갔다. 이태희 목사는 첫날 집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먼저 돼야 한다”고 경종을 울렸으며 둘째날 집회에서는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은 겉으로 나타난 열심이 아닌 진실함에 있다고 성도의 기본에 대해 강조했다. 마지막날 집회에서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강조하면서 “틀어진 인간관계는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구할 때 용서가 되고 화평케 될 것”이라며 믿는 성도들이 먼저 사랑의

모범을 보일 것을 당부했다. 내년 은퇴를 앞둔 이태희 목사는 이번 성회를 통해 40년 전 자신의 뜨거웠던 열정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2012년도 뉴욕 할렐루야대회 감사이기도 한 이태희 목사는 3일간 진행된 성회를 통해 신앙의 기본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면서 할렐루야대회 못지 않은 은혜를 끼쳤다. 특히 이번에 진행된 대성회는 1977년 민족복음화대집회 40년차를 맞는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 성회의 성격으로도 진행돼 뉴욕교계의 단합을 꾀했다.

“말라위에 사랑의 손길을”

지난해 발생한 홍수 여파로 말라위 현지 식량 사정이 몹시 어려워졌습니다. 주식인 옥수수를 11월 말에 파종하여 내년 3월에 추수하게 되는데 벌써부터 굶고 있는 집이 한 두 집이 아닙니다. 라디오에서조차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한 끼 양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홍수 여파로 품귀현상을 빚게 된 곡물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내년 수확철까지 곡물을 확보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비용 감당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1,000가마의 옥수수와 160가마의 콩이 창고에 있지만 내년 추수 때까지 견디려면 옥수수는 1,000가마, 콩은 260가마가 추가로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분량을 구입하려면 미화로 약 22,000불, 한화로 약 26,500,000원 정도가 있어야 하루가 다르게 비싸지는 곡물을 현재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콩은 50킬로 한가마에 미화로 35불(42,000원), 옥수수는 15불(18,000원)입니다.

내년 추수 때까지 이겨낼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김홍진 선교사 올림

*후원문의: 미국)전화 562-674-0691/payable to: Crops of Love Ministries/Mail to: Crops of Love Ministries USA, P O Box 5615 Fullerton CA 92838/한국)전화 02-6338-2642/송금(국민은행 92642069155 아프리카사랑재단)

십자가의 길

LA영성사역원(공동대표 이명수 목사·김재홍 목사) 주최 '제2회 십자가의 길'이 11일부터 12일까지 청운교회(담임 이명수 목사) 비전 하우스에서 개최됐다. 청운교회는 이 사역을 위해 모든 섬김을 아끼지 않고 후원하고 있다.

이번 '제2회 십자가의 길'에는 제1회 때의 참가자들이 강사 등으로 다시 섬겨줘 처음으로 참가하는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첫날에는 '1세기 사도들에게 준 십자가와 그 영향(강사 알렉스 박 목사), '십자가의 역사적 사고(이종곤 목사) 등의 특강과 '십자가와 기질(김진년 목사)' 주제의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어 각 조별 비아 돌로로사의 14처소에 대한 묵상 시간을 가진 후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 오르는 시간을 가졌다.

이 14처소는 주님께서 가신 '비아 돌로로사'를 그대로 재현해 놓아 각 처소를 통과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체험케 해준다. '십자가의 길' 참여 문의는 213-675-8291로 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청운교회 비전하우스에 조성돼 있는 '십자가의 길' 제14처소에 세워진 실제 모형의 십자가.

“세계 종교박해 80%가 기독교 대상”

ACN 보고서...이라크 내 기독교인들, 5년 내 사라질 수도 있어

세계 종교박해의 80%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이 추세라면 이라크와 같은 국가에서는 5년 내로 기독교인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한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가톨릭 구호 단체인 ACN(Aid to the Church in Need)가 발행한 “박해 받고 잊혀진 사람들?”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기독교 박해와 폭력 행위 등으로 아프리카 특히 중동의 기독교인 숫자가 급감하고 있으며 곧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ACN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기독교 박해국 19개국 가운데 15개국의 상황이 더 나빠졌음을 알렸다.

또한 극심한 종교박해가 일고 있는 나라는 6개국에서 10개국으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그 10개국은 북한과 이라크, 파키스탄, 중국, 시리아, 니지리아, 수단, 에리트레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등이다.

북한 등의 전체주의 정권에서 기독교인들은 박해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수단과 케냐, 니지리아에서 이슬람 무장단체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독교인 12만 명 가량이 IS로 말미암아 이라크 북부 모술 등의 도시를 떠났으며, 니지리아에서는 가톨릭 성도 10여 만 명이 살던 곳에서 떠나야만 했다.

다음 주는 정기 휴간입니다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계발·토렌스, 엘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USA Tel: (949) 329-8222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Email: shelby.moon65@gmail.com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www.MyIvydream.com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증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 목회학박사(D.Min.)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1월 1일)

> 한영이증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증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얼바인침례교회 창립41주년 기념 안수예배 및 부흥회 개최

얼바인침례교회(담임 박경호 목사) 창립41주년 기념 안수예배 및 부흥회가 열렸다.

부흥회는 박정근 목사(부산영안침례교회 담임)를 감사로 초청, 16일부터 18일까지 열렸다.

박정근 목사는 부흥회 첫째날인 16일 금요일 저녁에는 ‘제자의 자격’(마8:18-27)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둘째날인 17일 토요일에는 ‘제자의 모습’(요8:1-11)과 ‘제자의 계명’(요13:34-35) 주제로

새벽예배와 저녁 집회를 각각 인도했다. 마지막 날인 18일 주일에는 1, 2, 3부 예배를 통해 ‘제자와 은혜’(마 20:1-16) 주제로 집회를 인도하며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다.

또한, 창립41주년을 맞이해 18일(주일) 오후 4시 안수예배도 함께 드려졌다. 이날 안수예배를 통해 김진홍, 구연성, 신수언 집사가 각각 안수집사로 임직됐다.

한편, 얼바인침례교회는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여 복음으로 열방



안수예배를 마친 안수집사를 비롯 교회 관련 임직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안수예배에서는 김진홍, 구연성, 신수언 집사가 안수집사로 각각 임직됐다. (뒷줄 왼쪽으로부터 네 번째)박경호 담임목사.

을 축복한다’는 비전하에 ‘주님사랑, 영혼사랑, 복음전파, 인재양성 등의 미션을 펼쳐가는 얼바인 지역

대포 교회 중의 하나다. 교회 주소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이며 문의는 전화

949-857-9425로 하면 된다. 웹사이트는 www.irvinechurch.com다. 문소현 기자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선한목자교회 창립40주년 기념 부흥회 및 ECO 교단 가입과 새 예배당 입당 감사 음악회 개최



선한목자교회가 새로 이전한 성전에서 10월 4일 은혜로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가 창립40주년 기념 부흥회 및 ECO 교단 가입과 새 예배당 입당 감사 음악회를 열었다.

부흥회는 림형천 목사(잠실교회 담임)가 초청돼 9일부터 11일까지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주제로 진행됐다.

림형천 목사는 집회 첫째날인 9일(금) 저녁에는 ‘최고의 승리’(사 7:1-8)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10일 토요일에는 ‘아멘의 믿음’(고후 1:15-20)과 ‘최고의 믿음’(마8:5-13) 등의 주제로 새벽 예배와 오후

집회를 각각 인도했다.

계속 이어진 주일 예배 집회에서는 ‘르호봇의 복’(창26:12-22) 주제로 1/3부예배에서 설교했고, 마지막인 주일 오후 집회에서는 ‘최고의 교회’(마16:20) 주제로 각각 말씀을 전하며 이 교회 성도들에게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또한 18일(주일)에는 ECO교단 가입을 축하하는 감사 및 새 성전 입당 감사 음악회가 이 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한편, 선한목자교회는 지난 9월

20일 열린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 로렌하이츠에 있는 기존의 선한목자장로교회 건물을 포기하고 치노힐스의 현 새 성전으로 이전했다. 그리고 10월 4일 첫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새성전 시대 예배를 이어가고 있다.

*주일 예배: 1부-오전 8시 2부-오전 9시 30분(EM), 3부-오전 11시, 4부-오후 1시(청년부)

*주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문의: 626-965-3443

글로벌선진학교 GVCS 미국 캠퍼스

‘Faith aim Dream’ 장학기금으로 버지니아주에 GVCS FOUNDATION 제3세계원주민자녀와MKPK장학생선발 공식 등록

지난 8월 20일 펜실베이니아 스코틀랜드 캠퍼스에서 공식 개교식을 갖고 운영 중인 글로벌 선진학교GVCS는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독교 중고등 대학 학교 중의 하나다. 국제화 교육을 지향하는 GVCS는 2004년 음성에 이어 2011년에 문경 캠퍼스를 개교하였으며 현대 교육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심장부에 제3의 캠퍼스를 개교하게 된 것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약 185에이커(22만평)에 달하는 부지위에 80여 개의 빌딩이 세워져 있는 캠퍼스는 원래 정부의 참정용사 자녀학교로 120년 동안 사용해오던 전통적인 기독교 학교로 알려졌다. 캠퍼스시설관리회사인 Scotland Inc.와의 협정을 통하여 향후 50년간 관리 실비만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최고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한국의 GVCS가 그동안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적인 교육의 장점과 미국 기독교 교육의 장점을 접목하여 최고의 글로벌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Faith and Dream’ 장학기금의 투명 관리에 위하여 버지니아 주 정부에 공식적인 장학재단 등록을 마쳤다. 이를 기점으로 미국 내 주요 도시 단위로 글로벌 선진교육 장학후원회를 설립하여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인재양성 사역에의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현재 나성영락교회 박희민 원로목사를 후원회장으로 한 가운데 교회 및 기관단체, 기업 및 개인 후원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최근 동성애 문제를 비롯해 민감한 사회적 문제들과 가치관의 주요 이슈들이 반성경적이거나 비성경적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크리스천 자녀들의 신앙적 혼신과 이탈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GVCS는 반성경적 흐름에 적극 대처하는 교육을 지향할 것이다.

축구, 야구 등 스포츠 인재 양성도 병행

글로벌선진학교는 한국에서 단시간 내에 학업과 스포츠를 병행하여 지방대회를 석권하고 전국대회의 순위권에 진입하는 패거리를 이뤘다.

또한 전교생 의무 태권도 3단 승단 제도를 시행하여 자신감과 근성 있는 강인한 신체와 인성을 키우는데 괄목할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 캠퍼스에서도 스포츠계의 인재 양성을 기대하고 있다.

8-10학년 연중전·입학가능

9-12학년 고등학교인 미국 GVCS는 신앙, 기숙사 학교생활 가능한 태도, 일정수준의 학업성취도, 담임목사님의 추천이 있으며 소정의 입학전형절차를 거쳐 매 학기 마다 입학이 가능하다. 또 50위권 내 대학 입학 보장원칙에 입학하여 모든 학생들을 명문대학 장학생 입학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의: 717 830 9356(강 유준 교감) 614-725-6632(송 하은 간사)

남가주여성목사회 탈북자녀 위한 바자회 열려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가 탈북자녀들의 장학금 마련을 위해 바자회를 15일부터 17일까지 한우리장로교회(담임 강지원 목사)에서 열었다. 이번 바자회의 수익금은 남가주 지역 내 100여 명에 달하는 탈북자들 가운데 킨더부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20여 명에게 장학금으로 수여된다. 김준형 기자



바자회 주최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임원들. (왼쪽에서 세 번째)회장 강지원 목사

2015년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

2015. 10. 25 (주일) 오후 4:30

동부 사랑의 교회 사랑 채플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EL 909-590-3722 FAX 909-548-3722
WWW.EASTSARANG.COM

..... 초대 의 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동부사랑의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축하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명단

- 장로임직** 강정환
- 협동장로 취임** 박상철
- 안수집사임직** 강토마스, 김강영, 김난영, 김용호, 배종화, 백 우, 임현종
- 권사임직** 강정희, 김미경, 김민재, 김재기, 김제니, 김혜경, 박화숙, 백혜인, 서연희, 이은실, 이인행, 이종숙, 이지니, 이현선, 전인순, 정조이, 정현정, 조정숙, 하경순, 한윤정, 한은숙, 황숙현, 황은정
- 협동권사 취임** 김희남, 박정옥, 임혜열
- 명예권사 추대** 김혜자, 박케이

동부사랑의교회
East Sarang Community Church
담임목사 박승규 / Sr. Pastor Paul S. Park

미션의 개념이 총체적 선교로 바뀌면서 선교적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많은 기독교인 사업가들이 신앙을 비즈니스에 적용해 성공을 거두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이바지하는 것을 꿈꾼다. 하지만 방법을 몰라 대부분 암중 모색하며 갈팡질팡하는 것이 현실이다.

은혜한인교회 장로로 16년간 건축국장을 맡아 못 하나 박는 것까지 행했던 강충원 선교사가 자신이 설립한 선교단체 '킹스 앤드 프리스트스 미니스트리스(Kings and Priests Ministries)'를 통해 운영하는 '크리스천CEO스쿨'은 바로 그런 이들에게 나침반이 되어 준다.



2년 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크리스천CEO스쿨에서 학생들이 강충원 선교사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열방 섬기는 왕과 제사장 같은 기업인 양성

기독일보 초대석 크리스천CEO스쿨 원장 강충원 선교사

강 선교사는 삶의 굽이굽이에서 슬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다. 세계적 대기업 GE의 전무로 동부에서 일하는 동안 시라쿠스 대학교와 올드도미니언 대학교에서 대학원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그가 1985년 서부로 이사한 뒤 UCLA에서 같은 사역을 하기 위해 GSC(Graduate Students for Christ에서 지금은 Grace Stewards for Christ로 바뀜)라는 단체를 만들 때도 그랬다. GE 코리아를 세워 사장을 맡으라는 회사의 오퍼를 하나님의 응답이 안 와서 거절한 직후의 일이었다.

목사들이 제법 많은 LA에서 집사가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것을 꺼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면 "UCLA로 가라"고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어느날 학교에 가서 "저, UCLA에 왔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자 "성경공부를 해야지"라는 응답이 왔었다. 그는 자기가 하자고 하면 안 모일 것 같아 찬양 잘 하는 소프라노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하나님께 내걸었다. 테너 남편을 가진 자매라는 추가 조건까지 붙여서. 그리곤 안심했다. 하나님도 힘드시리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그는 고교 동창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다가 좌절을 맞는다. 친구 중 하나가 "잘됐다. 마침 여동생 부부(현 광주대학 교수 최덕식·박미애 부부)가 USC에서 공부하러 타주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다. 꼼짝없이 성경공부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지만, 기밀 언덕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도 예비하고 계셨다. 그는 남가주로 데려온 옛 부하직원에게 혹시 UCLA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사촌동생이 다닌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성경공부 할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부탁했다. 다음날 그 직원은 사촌은 졸업했더라도 이름도 없이 전화번호 하나만 달랑 건네준다. "하자고 하면 틀림



크리스천CEO스쿨 원장 강충원 선교사.

없이 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받은 번호대로 다이얼을 돌렸으나 흑인 남성이 받는 바람에 그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다시 걸어 보라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났다. 처음 전화가 잘못 건 번호였는지 이번에는 한국 사람이 받아 울먹거리며 "우리가 성경공부 시켜 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라고 하는 것이었다. 6명을 만나 첫 성경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 그는 운전시간 45분 내내 눈물로 자신의 의식과 불순종을 회개했다. 기도하며 씨를 뿌린 결과 GSC는 한 때 150명까지 모였으며, 이해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했다.

사업에 승승장구하다 실패를 맞은 뒤 암흑기를 보내던 그는 2008년 말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 하던 그를 순회선교사의

길로 이끄셨다. "너 같은 사람들을 키우라"고 명령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하며 번 돈을 선교를 위해 쓰는 사람을 기르는 일은 순회선교사 소명과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그는 KPM을 세우고 '열방을 섬기는 왕(강한 영향력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과 제사장(주님의 마음에 합한 영성을 가진 크리스천)으로 쓰임 받자'는 비전 아래 크리스천CEO스쿨을 만들었다. 은혜한인교회 김광신 목사의 조언을 듣고 만들어 교회 내에서 4년간 운영

이나 인간관계의 문제에 속 시원한 해답을 준다" "이 시대의 리더들이 꼭 들어야 할 실제적이고 살아 있는 강의다"는 등의 평가다.

크리스천CEO스쿨은 3학기(한 학기는 보통 8~10주)에 걸쳐 강의와 소그룹 토의, 워킹 형태로 진행된다. 남가주에서는 내년 봄 새 학기가 시작된다.

"전세계에서 예수 재벌 200명을 키워내는 것이 꿈"이라는 강 선교사는 한 해의 거의 절반을 유럽, 남미, 아프리카, 호주, 한국 등 해외에서 보내면서 사람들을 성경적인 비즈니스 리더로 키운다. 최근에도 4명

최고 수준 경영수업 받고 사업도 크게 해본 경험 바탕 살아있는 내용으로 '성경적 기업인상' 확실히 가르쳐 예수재벌 양성 꿈 품고 한 해의 절반은 외국에서 강의

했던 지도자 대학교를 빼대로 삼았다. 페퍼다인 대학교 경영학 석사과정, 잭웰치 리더십 연구소 경영자 과정, 스탠포드 대학교의 최고 경영자 과정 등을 거치면서 받았던 최고 수준의 경영수업과 베네통트론닉스와 BMR을 설립해 사업을 크게 해 본 경험이 밑거름이 된 것은 물론이다.

학교를 졸업한 뒤 배운대로 실천해 놀라운 성과를 올린 학생들의 증언을 듣는 것이 그에게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배운 내용 대로 직원들을 가르친 후 회사로부터 "너희가 너무 일을 잘하니 전부 월급을 30% 인상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은 부서장, 수입이 20배 이상 늘어난 사업가 등은 몇몇 예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서 재정 및 건강 관리법에 이르기까지 기업경영에 대한 성경적 방법론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이 학교에는 수강한 이들의 찬사가 쏟아진다. "경영 서적과 자료가 넘쳐나지만 답은 없는 시대에 이 학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강의로 사업

의 동역자들과 함께 12일간 몰도바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아왔다. 바쁜 시간을 쪼개 그는 제자들에게 맡긴 GSC에서 가끔 성경을 가르치고 월 2회 KPM 모임도 갖는다.

"CEO스쿨의 교재는 계속 업그레이드됩니다. 새로운 경험을 늘 추가하기 때문이지요. 많은 분들이 성경적 원리와 혁신적인 경영기법을 사업 현장에 적용해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에는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다 보면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서울대 전기학과를 조기 졸업한 강 선교사는 전역 장학생으로 케이스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에서 5년만에 공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컨설팅업체 히어컴(Hearcom) 대표로 있다. 인생 역전의 비결을 담은 책 '감사진법'을 내고 지금도 하루 70번 감사하기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문의: www.KPMmission.org. (818)823-0932

김장섭 전문위원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최진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 ONE YEAR!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 Accounting
- Business Management
- Administrative Assistant
- Phlebotomy
- Medical & Clinical Assistant
- Medical Office Management
- Pharmacy Technology Administration
- Digital Media
-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CADD)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한국어 상담 그레이스(Grace)
직 통 : T(213)703-6863
Office : T(323)966-5444

WE OFFER:

-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 Job and Career Placement Assistance
- Day and Evening Classes
- Transportation Assistance
- Student Visa Assistance
- Accredited by ACCET

LAORT.EDU
800 NON-PROFIT SCHOOLS WORLDWIDE
1.800.998.2678

MID-WILSHIRE CAMPUS
643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8

SAN FERNANDO VALLEY CAMPUS
14519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남가주교협 주최 증경회장단 초청 간담회가 19일 엘에이 한인타운 내의 한 식당에서 열렸다.

“남가주교협 증경회장단 초청 간담회” 개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와 남가주한인목사회의 전직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경회장단 초청 간담회가 남가주교협 주최로 19일 열렸다.

강신권 목사는 현 회장인 최혁 목사에게 제45회기 수석부회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지난 2014년 11월 3일 제45차 총회에서는 수석부회장 출마자가 없어 결국 수석부회장을 뽑지 못했고 총회원들은 수석부회장 임명의 전권을 최혁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따라서 현재 공식적으로 수석부회장인 강 목사는 차기 회장에 출마하면서 남가주 주요 교계 단체의 원로들을 만나 인사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약속 받았다.

회하면서 신학 교육과 해외 선교사역에도 큰 업적을 남겼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한학기 독교연맹 등 다양한 대사회 활동을 펼쳤다. 그가 속한 해외한인장로회(KPCA) 내에서 노회장을 비롯해 총회 헌법위원장, 교육위원장 등 중직을 지내며 교계 정서에도 밝다.

이날 참석한 교계 원로들은 그동안 강 목사의 사역에 비추어 그가 교계연합 사역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이날 강 목사는 “남가주 1400여 교회와 400여 교계 단체, 12개 지역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잘 섬기겠다. 임기를 마칠 때에 잘 했다, 수고했다 칭찬 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인사를 전했다.

강 목사는 남가주에서 30년간 목

김준형 기자



청지기목회자학교에서 민승기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사역은 학력이나 신학 아닌 열정”

군목·원목 후보자 교육 청지기목회자학교 강좌 개최

미국 군목과 원목 후보자를 교육하는 USCRC(US Chaplain Research Center)가 주최한 청지기목회자학교 가을 강의가 애너하임에 있는 새하늘교회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 열렸다.

이 행사에는 법학박사 출신인 이병규 목사, ITS의 김재영 교수, 골든게이트신학교의 김송식 교수, 군목인 조셉 최 대위, ECA의 한인 코디네이터인 김경렬 목사, 오렌지카운티교협의 부회장 민승기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강사들은 “사역은 학력도 신학도

아니다. 열정이다.” “은 세상이 사역지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란 주제 아래 10여 명의 목사후보생들에게 이민 목회와 선교의 현실, 교단의 정체성과 각 교단 안수 과정, 사역의 방향과 미래, 목회자의 가정과 윤리 등에 대해 강의했다. 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필수 과정 중 하나인 인터뷰를 영어로 모의 진행하기도 했다.

청지기목회자학교 겨울 강의에 대한 문의는 전화 310-502-9999, 이메일 uscrschool@gmail.com로 하면 된다.

이인규 기자

동부사랑의교회 사랑부모교실 오픈강좌

동부사랑의교회는 ‘자녀와 중독 문제’ 주제 오픈 강좌를 연다.

- *일시: 11월 4일(수)
- *시간: 오후 7시
- *장소: 믿음채플 초등부 예배실
- *주소: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 *문의: 636-836-4181

한기홍 목사 출판기념 감사예배

한기홍 목사 저 ‘오늘을 만족하라’ 출판기념 감사예배가 열린다.

- *일시: 10월 22일(목)
- *시간: 오후 7시 30분
-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친교실
- *주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문의: 714-446-6200

박성규 목사 출판기념 감사예배

박성규 목사 저 ‘말씀이 불이 되어’ 출판기념 감사예배가 이 교회 주일 예배 3부에 열린다.

- *일시: 11월 8일(주일)
- *시간: 오전 11시 30분
- *장소: 주님세운교회
- *주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 *문의: 310-325-4020

연합 설교 페스티벌

미주장로신학대학교 주관 제1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이 열린다.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서 장차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현장에서 헌신할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설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말씀으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함께 그 목적이 있다.

- *일시: 11월 7일(토)
- *시간: 오전 9시-오후 12시 30
- *장소: 나성영락교회 본당
- *주소: 1721 N Broadway, LA, CA 90031
- *주최: 7개 (신학)대학교
- *참가대상: 인준받은 학교의 신학생들
- *문의: 562-926-1023 (미주장신 행정처장 구경모 교수)



“LA ORT COLLEGE”

LA ORT COLLEGE는 비영리 사회 교육기관으로 이민자 교육에 많은 영향력을 끼쳐 왔다. 졸업생들의 성공적인 체험담을 통해 많은 도전을 받길 바란다.

LA ORT 칼리지의 ‘메디컬 오피스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에서 배운 모든 내용을 나는 나의 직장에서 매일 적용했다.

그 결과, 직장 상사인 케빈 토마스 박사는 나의 의료 현장 기술과 지식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게 됐다. 그는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간파했고 임금을 두 배로 올려 줬다. -Yisel Pat

나리 선생은 나를 메디자드 박사 밑에서 익스텐션을 마칠 수 있게 해줬다. 나는 그 곳에서 내가 배운 내용을 실제로 현장 실습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다. 그 결과, 두 곳으로부터 채용 제의를 받았고 나는 그 중 내 스케줄과 라이프 스타일에 더 적합한 쪽을 선택했다.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어 너무나도 행복했다. 지금은 ‘뉴 선라이즈 클리닉’에서 메디컬 임상보조로 일하고 있다. 매일 직장으로 출근하여 환자나 스태프들, 그리고 의사들을 보조하는 일이 너무나도 신나고 즐거운 하루 일과가 되었다. -Zhiyuan Cui

LA ORT 칼리지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나는 ‘인터페이스 리햄’사에서 일을 하게 됐다. 이 곳에서 나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나는 내가 배운 지식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이 기쁘다. -Lucy Santos

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Zhiyuan Cui

LA ORT 칼리지는 우리들의 삶속에서 아주 큰 기폭제 역할과 열정을 품게하여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LA ORT를 통해서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Janice Martin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뜻깊은 일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Luch Santos

LA ORT 칼리지의 메디컬 오피스 매니지먼트 관련 프로그램 학위는 1년 과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메디컬 터미널노지, 메디컬 리코드, 메디컬 인슈어런스 및 코딩, 클리닉 킵 스킬 등을 배운 후 익스텐션으로 마무리 된다. 이 익스텐션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채용 기회를 얻게 된다.

현재 LA ORT 졸업생들 중에는 병원, 약국, 양로원, 변호사 사무실, 일반회사, 비서직, 웹디자인, 신문사, 공인회계사 등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8개월 간의 영어 ESL 코스 무료 교육 혜택도 있으며 유학생 I-20도 발급하고 있다.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희망한다면 LA ORT 칼리지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 *문의: 한국어 상담(그레이스) 사무실: 323-966-5444
- 지동: 213-703-6863
- *위치: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 *웹사이트: www.laort.edu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지사명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2015 홀리리바이벌

H O L Y R E V I V A L

2015. 10. 30(금) - 11. 1(주일)

주제 | SUBJECT

거룩한 예수세대

The Holy Generation of Jesus

강사 | SPEAKER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부흥을 사모하는 모든 세대를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첫째날

10.30 | 금 | 7pm

사우스베이선교회
25512 Walnut St., Lomita, CA90717
TEL. 310_530_6885

둘째날

10.31 | 토 | 6pm

임마누엘헬로쉽교회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4
TEL. 562_944_8082

셋째날

11.1 | 주일 | 5pm

유니온교회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91791
TEL. 626_858_8300

주최

기독교 미주성결교회
남서부지방회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의 소원

골로새서 1:18~29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교회의 사명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지만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화목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 와서 목자를 통하여 성령의 깨우침을 따라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با 아버지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하기 위하여 교회는 목자가 꼭 있어야 하는데, 그 목자가 예비되라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진리 정통하고 성령의 은사와 영력을 나타내면서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며 양떼들로 모두가 진리 정통한 가운데 성령충만해집니다. 그 교회는 하늘 소망 가꾸는 교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의 보좌를 내어 놓고, 육신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에게 매 맞고 망신과 행패와 십자가 형틀에 모진 고통으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으로 이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 이름을 불러 회개하고, 애통하고, 자복하면 그 모든 죄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성령을 다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호적부인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 주시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으로 믿음을 결심하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야 하늘 문이 열린 교회가 됩니다.

2. 화목의 비밀

19절부터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넘겨받으신 것입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회개해서 죄 씻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목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들의 모형이 설명하는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원수가 없어야 합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 속에 한이 응어려져 있어서 “이놈, 나한테 이렇게 했지!”하는 인생은 아직도 하늘 소망을 얻기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것이 손해가 됩니다.

상대방이 내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또한 상대방에게 잘못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을 온전히 이루고 하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복락이라는 영원하고 신령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찾아가 ‘전날에 우리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깨닫고 보니 내가 당신에게 잘못된 것이 많았더라. 그러니 내가 먼저 당신에게 용서를 빌고 화목을 청한다.’ 라고 해 보세요. 그 사람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잘못하긴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피해를 주고 부담을 줬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라고 하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육신이 세상의 허욕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적으로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당신과 나하고 풀려와 왔습니다. 당신이 내게 화가 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부담이 가도록 한 책임이 내게도 있었으니 제가 용서를 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더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이 이뤄질 것입니다. 화목이 됩니다. 화목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에 맺힌 원과 한을 풀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화목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하셨습니다.

3. 예수님의 소원

23-24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끔씩 흔들립니다. 상당히 소망적인 것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나를 엄습해

오면 그 인생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럴 때 믿음이 흔들리면 안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로 동요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고문과 죽음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죽으면 죽으리다”는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사도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꼭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란의 고통, 핍박, 고문, 위협, 행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과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단을 받는 성화과정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회개하기 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처럼 인생설계도 하고, 그 설계대로 노력도 해보고, 실패도 해 보았지만,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나를 비위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성도가 사는 목적이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쓰임 받고 더 잘 섬기는 중심이 간절하면, 예수님께서 쓰이면서 충만하신 것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저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목숨 불드시는 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려는 목적으로 내 생애를 복음의 제물 되기를 소원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항상 제 가슴을 눈물로 저미게 합니다. 내가 이제 양떼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웁니다. 어떤 고난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장 목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 놓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갈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진리이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보잘 것 없는 손으로 기도해서 온갖 병자들, 귀신을 쫓아내는 등 많은 체험을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안 믿는다고 해도 저는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애가 탐니다.

이제 여러분의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넣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쓰임 받고, 더 잘 섬기는 중심이 간절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면서 얼마든지 뒷바라지 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주님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이동진 담임목사 위임 • 강영석 원로목사 추대



강영석 목사의 성역 52년을 달려온 바톤을 이어받은 이동진 목사는 삼십여년간 방송문화 선교사역 일선에서 사역해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사람 앞에서 당당한 삶!
세상을 사랑으로 이끄는 삶!
교회를 사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왔다.

목사로 부름받은 후에는 *Soli Deo Gloria*의 영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복음의 선포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소망하며 살고 있다.

이동진 담임목사
전, 숭실중학교 국어교사
극동방송 아나운서&PD
크리스천헤럴드 사장
현, CTS-TV방송전문위원
샘의료복지재단 이사

2015년 11월 1일(주일)
오후 3시



강영석 원로목사
1963년 창신교회 전도사
1969년 목사 안수
2015년 성화장로교회 은퇴
성역 52년간 목회 및 교수사역



KAPC

성화장로교회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무료 전도지 배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오늘도 이름없이 빛도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전도자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고귀한 사역에 동참과, 동역을 위하여, 2016년도 전도용 달력과 전도지와 간증지를 무료로 아래와 같이 제공 하려고 하오니 동역자 여러분의 협력과 아울러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전도용 달력 (스패니쉬) 주문을 받습니다. 한국어 영어 스페니쉬 등 각종 전도지와 간증지 CD등을 준비하고, 년중 무휴로 제공하고 있어오니, 전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213)220-3737, 이삼선 목사(선교사)
장소: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E-mail:psamslee@gmail.com



World Love Mission Foundation

7218 Pacific Blvd Huntington Park, CA 90255
 U.S.A Tel : (213)220-3737 Fax : (323)582-6694

담임목사 청빙 공고플로리다 주에 있는 **레이크랜드 한인장로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신 관계로 이민 목회의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 가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청빙자격 및 요건

1. 해외한인장로회(KPCA), 혹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이거나 해외한인장로회 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정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신 분으로 목사 안수 후 5년 이상의 목회 경력을 가지신 분
3. 이중 언어 (한국어/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
4.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 서류

1. 이력서 (사진첨부, 학력, 목회경력, 일반경력)
2. 목사안수증명서, 신학대학원 (M.Div) 졸업 증명서 및 최종학위증명서 각1부
3. 자기소개서 (본인 및 사모를 포함한 가족 포함 - 가족사진 포함)
4.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회분 (영어 설교 가능한 분은 1회 분에 한해서 영어 설교 제출) - DVD or Web link 등
5. 연령 45-55세 미만 (사모인 피아노 반주 가능 우대)
6. 추천서 2부 (각 추천인의 밀봉 날인과 추천인 연락처 요망)

제출 방법

1. 우편주소: Lakeland Korean Church
 Attn: Pastor Nominating Committee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1018 Neville Ave, Lakeland, FL 33805
2. E-mail: peterkim1953@gmail.com (1-316-644-0035)
 청빙위원회 서기 Peter Kim
3. 서류마감: 2015년 11월 14일

기타 사항

1. 제출서류는 우편 (마감일 도착분에 한 함) 혹은 E-mail에 첨부(PDF파일)로 먼저 보내주시고 E-mail로 모든 제출 서류를 보냈음을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서류심사에 통과된 분은 추가서류와 면담을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교회 홈페이지 (www.lkpc.onm.com) 통해 기타 자세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한인장로회 동남노회

레이크랜드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 이석철 교수의 신앙산책

가을에 생각해 보는 인생



이석철 목사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나 직업과는 상관이 없다. 주님의 부르심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모든 일을 그런 목적 의식으로 하고 있을까? 영국의 어느 큰 건축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던 인부 한 사람에게 지나가던 한 성직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냐고 물었다. 그 인부는 자기 직업이 석공이고 지금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돌을 다듬고 있다고 대답했다. 똑같은 질문을 다른 석공에게 했더니 그의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짓고 있다”는 것이었다. 같은 일이라도 목적의식에 따라 이처럼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교회음악의 대가인 바하는 자신의 작품에 ‘SDG’라는 약자를 써놓곤 했다. 그 글자는 ‘Soli Deo Gloria’라는 말의 첫 글자들이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다. 그는 음악이 직업이었지만 그것을 단순히 생계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수단으로 여겼던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분이 우리를 ‘피 값으로 사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어느 율법사의 질문에 답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이웃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투적 무신론자’로 알려진 동물

행동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말했다.

성공한 유전자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당한 이기주의’라고 그에 대해 서울대 종교학과 배철현 교수는 “이타적 유전자가 인간의 조건”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남의 아픔을 느낄 때 인간의 신성이 드러난다고 했다. 실로 인간은 동물이지만 동물 이상의 존재다. 그 속에 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엄한 인격체다. ‘이기적 유전자’를 통제할 수 있는 이성과 믿음을 가진 존재이고 그 힘을 올바르게 발휘하며 사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다.

하나님의 원리는 오묘하다. 우리가 남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결국 가장 큰 행복을 얻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가 말이다. 5인분을 먹는 것보다 다섯 명을 먹이는 것이 더 행복한 법이다.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 행복한 사람은 삶에서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는 사람이다.

스튜어트 에머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를 집필하기 위해 지속적인 성공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그가 발견한 사실은 행복한 사람들의 목표가 명예나 부, 또는 권력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런 것을 삶의 목표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공허감과 불행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배워서 남 주나?’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

세르비아에서 국민 오페라 가수 대접을 받는 우리나라 성악가 이현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의 간절한 꿈은 오페라 출연 1회당 만 불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힘과 행복을 주는 것이 꿈이라고 말한다. 그 꿈을 실천하면서 그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한다.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 배우고 일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 가을에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자.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헌신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보람 있고 행복한 것이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한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을에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기원해본다.

우습게 보았던 뒷산의 아름다움



김성민 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내가 사는 동네 바로 뒤에 LA에서는 제법 높다는 Wilson 산이 있다. 하지만 서북미에서 오랜 기간 살았던 나의 눈에는 매우 험벗은 산이었다.

하루는 산을 잘 아시는 분과 함께 그 산에 올랐다. 10마일을 걸으며 땀을 흘렸지만 여전히 그 산은 나의 흥미를 자극하기에는 그리 멋진 산이 아니었다.

결국, 그 날 산을 내려오며 스스로 멀리에서 보나 가까이에서 보나 별 볼일 없는 산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두 주 후 나를 인도한 그 분이 내 마음을 읽었는지 그 산의 다른 쪽을 올라가 보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같은 산인데 뭐가 다르겠느냐고 하면서 새벽 5시에 그 분을 따라 나섰다.

그런데 이번에는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그 산을 옆으로 돌아 산 중턱까지 갔다. 높이가 5천피트를 넘었다.

나는 놀라고 말았다. 그 산의 높이가 3천 피트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초여름인데도 아래 동네와 20도 차이가 났고, 두툼한 옷을 입지 않은 나는 추위를 느꼈다.

신발 끈을 다시 묶고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올라가는 길의 광경은 나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같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10층 건물을 훨씬 넘을 것 같은 높이의 곧게 뻗은 나무들과 네 명이 감싸도 모자랄 굵기의 나무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그 산에 대한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많은 말을 할 수 없었다. 저 밑에서 보던 것이 그 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산은 내가 알던 것보다 수 십 배는 더 큰 산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신앙생활이 건강의 회복과 사업

의 변창함 정도라면 알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여러 번 산으로 비유하며 높이고 크시며, 우리가 전부 알 수 없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 한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욥기 36장 26절)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려 주신다.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뒷산의 모습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늘 새롭게 깨닫는 삶이 되도록 영적인 눈과 귀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본 것과 같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과 같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으로 가려져 버린 신앙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들을 꿰뚫어 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 때에 눈앞에 있는 언덕을 보고 답답해 하며 한숨을 짓는 삶이 아니라, 뒷산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청지기목회자학교

목사안수나 편목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청지기목회자학교에서는 PCA, CRC, PCUSA, RCA, ECA, SBC 등 미국내 교단 안수 신청과 편목 서류를 도와 드리고 아울러 영어 인터뷰 때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한 영어구사 표현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1. 미국교단 안수 및 편목 지원방법과 관련서류 작성법 강의
2. 미군군목(육군, 해군, 공군, 해병 등) 지원서류 접수대행 및 인터뷰 과정 강의
3. 병원 원목(CPE) 프로그램 강의
4. 교회설립과 주 정부 등록 그리고 비영리 등록 강의
5. 교회 개척에 필요한 "One Stop Planting" 강의
6. 선교 가시는 분들을 위한 비즈니스 선교 강의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 그리고 목회에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분들은 전화 상담이나 예약방문을 권합니다

가을 강의 10월 19~21일

USCRC Pastoral Education(청지기목회자학교)

Tel(310)502-9999

2850 Ocean blvd #200, Santa Monica, CA 90405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얼바인 남동쪽 10마일 거리에 위치한 라구나우즈(Laguna Woods). 지척에 있는 라구나비치에서 불어온 비닷바람이 산을 넘는 동안 염분을 모두 떨구고 피부에 상쾌함을 선사하는 전원풍 도시다.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담임 립학춘 목사 · 24442 Moulton Pky, Laguna Woods)는 바로 그 한 복판에 자리잡고 있다. 이 교회는 평일날 구내를 산보하노라면 고즈넉한 분위기 때문에 마음이 절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본당(650석 규모)에 들어서면 예수님, 다윗, 요한 웨슬리 등을 표현한 스테인드글래스 작품이 감동을 주는 예배당을 50년 역사의 백인 회중인 라구나추리연합감리교회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4년째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는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이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에서 행복에 겨워 함박웃음을 꽃피우고 있다.

매주 갖는 성찬식, 하나님 은혜의 통로

▣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 <2>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꿈꾸며 1997년에 교회를 창립, 18년간 일편단심으로 목회하고 있는 립학춘 목사는 “약 85 가정, 120-130명의 성도가 오전 11시 30분에 본당에서 갖는 주일예배에 출석하고 있는데 교인들의 연령층이 높은 편”이라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아이들이 성장해서 떠나고 중년들과 노년들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서 현재는 주일학교가 없다.

1999년 옐렌지카운티의 32번째 시로 독립한 라구나우즈는 주민의 중간 연령이 78세에 달하는 은퇴자 천국. 전체 면적 중 90%를 55세 이상 은퇴자들의 게이트드 커뮤니티인 ‘라구나우즈 빌리지’(구 리저월드)가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센서스에 의하면 주민 1만4,000여 명 중 백인이 87.3%, 아시아인이 10%다.

이 교회는 교단의 서부지역 한인선교부가 옐렌지카운티 남부에 한인 연합감리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립 목사를 적임자로 픽업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이미 한인교회가 많던 얼바인을 피해 더 남쪽으로 내려와 장소를 물색하던 중 이 교회 본당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여기다”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교회는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셨다. 초창기에 신부들이 기사를 내주고 미주 복음방송의 ‘새롭게 하소서’에 2회 연속 출연한 것이 교회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그는 회고한다. 부목사로 사역했던 남가주주님의교회에서 사임 후에도 4개월간의 사례비를 주고 대표적인 한인 연합감리교회들이 매 주일 번갈아 와서 저녁예배를 함께 하고 헌금을 해주었던 일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고 있다. 그 후 한인 인구가 늘어나고 교인들이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품고 꾸준히 전도에 힘쓰는 결과 1년만에 독립된 예배를 세우는 등 탄실한 중형교회로 성장했다.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 매주 성찬식을 갖는다는 점이다. 늘하는 성찬식이 매너리즘

에 빠지는 역효과를 불러 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립 목사는 “성례전(성만찬과 세례식)에 대해 철저히 교인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주보에 성만찬의 바른 이해에 대한 돕는 글을 몇 차례 실기도 했다. “성례전은 하나님께서 은총의 통로로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하나님과 우리 간의 의사소통 수단인 이들 예식을 통해 하나

**중년과 노년 행복하게 어울려
예배의 본질 회복에 진력하고
장학 프로그램 노인대학 운영
지역사회 섬기는 일에 앞장
예수님의 지상명령 순종 위해
몽골 과테말라 등 해외선교도**

님의 사랑이 가시화되며 효력을 발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립 목사는 “요즘 목사 중 스타 강사가 배출되는 등 교회가 지나치게 설교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의 예전(설교)과 성례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성찬을 매주 하는 것은 한인들에게 인기가 없는 일로, “여기가 천주교냐”고 불평하며 교회를 떠나는 교인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인기에 영합하는 목회를 했다면 우리 교회는 오늘날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 교회는 창립 이래 줄곧 강단용 성경으로 ‘새번역’을 사용해 왔다. 단지 현대적 표현을 쓴 새 성경이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뜻도 모르는 기존의 어려운 번역을 고집하는 것

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서다. 셀폰 하나를 다른 기종으로 교체하는 일도 어려운데 성경을 다른 번역으로 바꾸는 일은 더 어려웠다. 하지만 “성경 사본은 오래된 것이 좋지만 번역은 새로운 것이 좋다”는 것이 남달라 가는 쉬운 길보다는 옳은 길을 걸으려 애쓰는 립 목사의 지론이다.

이 교회는 젊은 가정이 많던 과거와는 달리 갈수록 시니어들이 늘어나는 지역에서 ‘바람직한 실버 목회’에 대해 고민하다 ‘에버그린 아카데미’를 열어 커뮤니티를 섬기기 시작했다. 존경 받는 어르신인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인간은 노쇠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모토 아래 3-5월, 9-11월의 12주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어르신들에게 합창, 라인댄스, 서예, 미술, 생활영어, 미술, 스마트폰 등을 가르친다. 70여명의 등록생 가운데 교인과 비교인이 각각 반반이다. 점심식사를 제공하며, 수강료는 학기당 60달러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함을 잘 아는 ‘영적 베테랑’들이 넘쳐나는 이 교회는 꿈나무들을 키우기 위해 수년 전부터 장학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도 9명의 국내와 선교지의 학생들에게 총 1만6,000달러를 지급했다. 또 과테말라, 태국, 몽골 등으로 4차례 해외선교도 다녀왔다. 지난 8월 말에는 한 주간 10명이 몽골을 방문, 구치소와 신학교에 도움을 제공하고 현지 사역자 훈련을 실시하는가 하면 시골교회를 개척하는 커플의 결혼식을 지원한 등의 사역을 펼쳤다. 교단에서 몽골을 한인선교구로 지정했기에, 앞으로 다른 한인 교회들과 더불어 그곳을 중점적으로 섬길 계획이다. 그동안 예배회복을 위한 찬양 세미나를 개최하고 월드비전 친선대사 김혜자 권사 초청집회 등 의미 있는 행사들도 꾸준히 개최했다.

교회는 무엇보다 ‘모세 인생의 3분의 1은 남이 만들어간 시간, 3분의 1은 자신이 만들어간 시간, 마지막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만



립학춘 목사(왼쪽)와 집회 강사로 교회를 찾은 월드비전 홍보대사 김혜자 권사.

들어 가신 시간이었다’는 믿음으로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다. 립 목사는 “우리 교회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한인들의 유입이 늘어날 이 지역에서 얼마전 발족한 비저너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인학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등 ‘은퇴 후의 의미 있는 삶’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퇴는 단순한 쉼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뜻함을 노년들에게 깨우쳐 주는, 천국 가는 길의 좋은 길동무 같은 역할을 감당할 라구나우즈연합감리교회의 미래가 기대된다.

매주 강단 꽃꽂이를 직접 하는 립선희 사모와 더불어 목회의 보람을 일구고 있는 립 목사는 “많은 목사들이 큰 교회를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영혼을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했느냐로 나를 평가하실 것”이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문의: lagunaumc.org, (949)380-7777

김장섭 전문위원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기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상담학 석사: 신학/목회학/상담학 박사: 신학/상담학</p> <p>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징: Sevis 1-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회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p>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솔로몬대학교 말씀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p> <p>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p> <p>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p>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p> <p>51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p> <p>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p>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p> <p>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진 박사, 이사장: 김광민 목사</p> <p>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us / aeuimaster@gmail.com</p>

“미래 위해 올바른 한국사 교육 필요”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회(대표회장 설동욱 목사, 이하 한복총)가 최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한국사 교육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복총은 이 성명에서 “한국 기독교는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기독교는 일찍이 서구 민주주의를 한국에 소개했고, 일제의 핍박 가운데서도 새로 세워지는 나라는 민주국가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한국사 교과서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는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며 “현재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건국 주체세력을 반민족세력으로 평가절하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한 세력을 숭고한 희생자로 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6.25전쟁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것이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이것의 기초가 되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한복총은 “한국사회는 이렇게 좌편향된 한국사 교과서를 고치고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노력했다”며 “하지만 이런 노력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한국 기독교는 이 같은 현실을 보면서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보다 올바른 한국사를 서술하고, 좋은 교사를 양성해 미래의 대한민국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는 올바른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특별히 근세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지양하고, 기독교가 한국 근대사회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나라를 바로잡는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 정신에 기초한 역사를 세워야 한다”며 “학생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한민족의 정통국가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랑스러운 나라임을 알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통합 ‘2016 교육정책 팁 세미나’ 개최



예장 통합 ‘2016 교육정책을 위한 팁(Tip) 세미나’가 ‘화해’ 주제로 20일 연동교회에서 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 ‘2016 교육정책 팁(tip) 세미나’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삼목로 연동교회(담임 이성희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먼저 ‘2016년 GPL(God’s People Light of the world,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 프리젠테이션과 개회예배, 선택강의 후 이어 교육목회 심포지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심포지움에서는 김도일 교수(장신대), 이상억 교수(장신대), 박화경 교수(한일장신대) 등이 발제를 담당했다.

김도일 교수는 ‘화해 신뢰 회복을 위한 기독교 평화교육’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계층·이념·문화·인종간 발생하는 갈등을 생산적으로 해결하고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화해와 신뢰를 위한 교육, 평화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무한경쟁 시대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모습, 이러한 사회의 거대한 물결이 교회의 가치를 잠식하고 성경이 이야기 하고 있는 인간존엄의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며 “교회가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각성이 필요한 지금, 화해와 신뢰의 교육 및 공존과 평화의 교육을 논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이상억 교수는 화해를 위한 기독교상

담 방법론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일반상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내담자의 주 호소 문제를 기독교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주 호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담자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인생에서 문제란 쉽게 제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문제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용기와 그로 인한 평안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화해의 본질에 참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기독교 상담이 생각하는 화해를 위한 방법들을 통해 이 땅에서 화해가 이뤄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해 본다”고 했다.

박화경 교수는 이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화해교육’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영유아기는 일생 동안 타인과 평화로운 관계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서 능력을 배양하는 결정적 시기다. 기독교적 영성과 성품, 정서가 형성되고 개발될 수 있는 핵심적 시기인 영유아기 교육이 자칫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적 덕목이요 기독교인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화해의 삶’을 살기 위한 영성은 영유아기 양육에서부터 형성되고 발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영, 유아, 유치부와 아동부, 청소년부, 장년부를 위한 선택강의를 끝으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이동윤 기자

출산을 높이려 ‘비혼·동거’ 장려

교회언론회, ‘혼외아 장려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비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비혼·동거 가정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진정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논평을 20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해법을 이유로 ‘혼외아 장려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왔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로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할 것”이라며 “출산 장려를 위해 청소년들을 비롯한 비정상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무분별한 혼외아를 얻어내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설사 출산율이 단 1%라도 높인다 해도, 혼외아들이 겪

는 심적 고통과 현실적 냉대는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라며 “급증하는 청소년들의 폭력과 성범죄를 비롯한 갖가지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현재 1.94% 혼외아 비율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그 비율이 급증한다면 그로 인해 무너지는 사회 질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출산율 증가를 위해 비혼·동거를 장려하여 청소년들과 국민들의 성적 윤리가 무너지고 정상적 결혼이 급감한다면, 이는 건전한 사회 질서와 가정을 일거에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대윤 기자



<p>LA 지역</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정중학교 / 토요일·17와 버먼트 코너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p> <p>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만2세를 백업하며, 이만2세를 치료하며, 신교령을 순종하는 교회</p> <p>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213)386-2233</p>	<p>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예배 오전 11:20</p> <p>연제선 담임목사</p> <p>LA 온하늘교회</p> <p>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p>
<p>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p> <p>장태원 담임목사</p> <p>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p> <p>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p> <p>한현영 담임목사</p> <p>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 735-6412 / gmcchurhc.com</p>
<p>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p>	<p>1부예배 오전 7:4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믿음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p> <p>한기형 담임목사</p> <p>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p> <p>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종교동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예배 오후 1:00 토요일부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아나기도모임 수요일 10:30</p> <p>서건오 담임목사</p> <p>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p> <p>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pla.org</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성인 EM예배 오후 2: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화-토 오전 6시</p> <p>박현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활이 풍성한 교회</p> <p>325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p> <p>김광삼 담임목사</p> <p>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00 3부예배 오후 7:30 (화)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p> <p>정우성 담임목사</p> <p>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p> <p>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p>	<p>주일예배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1:00 목요일양재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p> <p>김경렬 담임목사</p> <p>산타모니카찬송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s.us</p>
<p>영어예배: 주일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성경공부: 주일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신현호 담임목사</p> <p>새하늘 교회</p> <p>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p> <p>조인수 담임목사</p> <p>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p> <p>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p> <p>김요섭 담임목사</p> <p>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p> <p>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사/토 필턴 옆) T.(213)380-0071</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p> <p>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p> <p>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령 (정부 배네티핏 전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p> <p>요한 선교회</p> <p>gkal44@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p>
<p>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p> <p>정장수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p> <p>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T.(213)500-4737 / olympic-church.org</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목요일양재목요일 오후 7시 30분</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인의 흐름</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p> <p>민중기 담임목사</p> <p>충현선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p> <p>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재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p> <p>류종길 담임목사</p> <p>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p> <p>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양재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p> <p>강지원 담임목사</p> <p>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행복이 있는 성령의 전도하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p> <p>이명수 담임목사</p> <p>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p> <p>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재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p> <p>김범수 담임목사</p> <p>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행복이 있는 성령의 전도하는 교회</p> <p>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재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p> <p>김범수 담임목사</p> <p>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p> <p>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재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p> <p>김범수 담임목사</p> <p>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p> <p>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p>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 sunhan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 주일 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김성민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 872-2405 교회, (503) 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화 오후 7:30
새벽예배 오월(월-금)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청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수) 오전 10:00-11: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에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 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 365-9188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후 1:30
한이침나무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 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 2부 11:00
중고등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11:30
EM 예배 오전 10:00(장년)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오전 2:00(장년) 수요일에 오후 8:00
KM 예배 오후 3:00(장년) 금요일에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 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정영희 담임목사

드림교회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교사예배(주일) 오전 9:45
주일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목요영성예배 - 저녁 7:45
구약모임 매월 1회
한글학교(토) 오전 10:30

박택근 담임목사

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 (빌 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익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영성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 예배 오전 10:00
스페인어 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쉽) 금요일에 오후 8:00 오후 12: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후 6:30 (토)

최호년 담임목사

파사데나 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동성애자인 진 로빈슨 주교가 성품된 2003년 이래 12년여 만에 미국성공회가 결혼의 정의를 변경했다. ©워싱턴국립대성당

친동성애, 미국성공회

자체 보고서 통해...교세 계속 감소 추세 보여

미국성공회가 교인수와 주일예배 참석자수, 교구수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는 자체 보고서가 나왔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먼저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례 교인의 수가 186만6,000명에서 181만7,000명으로 약 5만 명이 감소했다. 주일예배 평균 참석자 수도 2013년 62만3,000명에서 지난해 60만 명으로 줄어 들었다.

제프 월튼(Jeff Walton) 종교와민주주의협회 디렉터는 "성공회의 교세가 감소하고 있다는 또 다른 통계도 있다"면서 "성공회는 교구수도 2013년 6,622개에서 2014년 6,553개로 69개가 줄어들었고, 유아세례자는 2만5,822명에서 2만 4,594명으로 4.8%, 성인세례자는 3,675명에서

3,530명으로 약 4% 감소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성공회 사우스캐롤라이나 교구가 성공회를 탈퇴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 때 미국 최대 교파를 자랑했던 미국성공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근래 들어 동성애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힌 이후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교구를 비롯해 각 지역 교회와 교구들의 탈퇴가 잇따르며 교세가 계속해서 축소돼 가고 있다.

이번 2014년 교세 현황에 대한 보고서는 마이클 B. 커리(Michael B. Curry) 대주교의 취임식을 몇 주 앞두고 나왔다. 커리 대주교는 미국 성공회 역사상 첫 번째 흑인 대주교다.

낙태 정보 제공 의무화?

기독교적 임신 클리닉... 주 법무부 상대 소송 제기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임신 클리닉들이 최근 캘리포니아 의회를 통과한 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주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월 1일 발효되는 법(AB 775)은, 면허를 받은 임신 클리닉은 모든 환자들에게 캘리포니아 주가 무료, 혹은 저가의 임신 및 출산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 안에는 출산 전 진료 서비스나 가족계획 서비스 외에도 낙태 시술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반하는 클리닉은 첫 적발시 500달러, 그 후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된다.

이 법에 따르면, 낙태를 반대하는 종교 관련 임신 클리닉들도 환자들에게 주

가 운영하는 낙태 프로그램을 소개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에 일부 클리닉들은 이 법이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태평양법률협회의 브래드 대쿠스 대표는 "종교적으로 친생명적인 자선단체가 친낙태적 선언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를 터무니없이 위반한다"면서 "정부의 이런 지시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은 상원에서는 24-14, 하원에서는 49-26으로 통과됐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오프라 윈프리의 새 다큐 '신앙' 다원주의 논란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종교다원주의적 입장은 잘못된 것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오프라 윈프리의 새 다큐멘터리 시리즈 '신앙(Belief)'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이르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래함 목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프라 윈프리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래함 목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능동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만이 인간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것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견해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오직 한 길, 오직 한 구원자,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고 덧붙였다.

윈프리는 7부작으로 구성된 이 시리즈를 통해 사람들의 다양한 신앙,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이러한 신앙들이 세상과 얼마나 깊이 연계되어 영향을 주고 받는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리즈는 제작에 3년 이상이 걸렸고 전 세계 33개 지역을 탐방했다. 윈프리는 특히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 시크교 등 100가지 이상의 신앙을 다루면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직접 만났다.

그러나 클레어몬트 신학대학교의 타종교 교육(interreligious education) 조교수인 나지바 시이드밀러(Najeeba Syeed-Miller)는 지난달 이 다큐 시리즈

를 시청한 후 "서로 다른 신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서 "다원주의적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혼합주의적은 아니었다. 하지만 두려움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시리즈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 연속 심야에 OWN을 통해서 방송된다.

한편, 애틀랜틱지(The Atlantic)에 따르면, 윈프리는 "동요를 배우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배우며 자랐다", "엘리아와 엘리아 이야기,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메사-아벳느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며 자랐다",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며, 두려움 없이 살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투어 주시도록 내어 주어야 한다고 배웠다" 등 자신의 인생에 성경이 미친 영향에 대해 여러 번 공개적으로 밝혀 왔지만, 하나님께 이르는 수백만 가지의 길이 있다는 절충주의 영성(eclectic spirituality)을 신봉하고 있다. 또 디팍 초프라(Deepak Chopra)와 에크하르트 톨레(Eckhart Tolle)와 같은 뉴에이지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있다.



오프라 윈프리

이혜리 기자



로총가 푸다이트와 부인 ©세계를 위한 성경(Bibles For The World · BFW)

달릿 출신 기독교 지도자 '로총가 푸다이트' 소천 인도 빈민들에 성경 · 교회 · 학교 · 병원 남겨

인도 동북부 마니푸르주의 달릿 출신으로 '세계를 위한 성경(Bibles For The World·BFW)'의 설립자인 기독교 복음전도자 로총가 푸다이트(Rochunga Pudaite)가 10일 소천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그는 푸다이트는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 병원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향년 87세.

'하나님의 부족(God's tribesman)'으로 알려진 푸다이트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줬다.

BFW의 부대표인 제프 맥린든(Jeff McLinden)은 "푸다이트는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삶과 사역은 한 명의 기독교인이 하나님에 의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푸다이트의 노력으로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성경의 메시지를 전해 들을 수 있었고,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많은 이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리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텐버포스트에 따르면, 푸다이트가 그의 아내인 랄리마위(Lalrimawi)와 함께 1971년부터 시작한 BFW는 그동안 2,200만권 이상의 신약성경을 전 세계 118개국의 가정들에 보냈다.

푸다이트는 1927년 인도 북동부의 호전적인 부족인 '흐마르(Hmar head-hunter tribe)'족의 아들로 태어나 자랐다. 이 부족은 전사로 알려져 있었고, 영국 식민지 시절 500명의 영국 군인들을 참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첫 번째 기독교 개종자들 중 한 명이었고, 푸다이트는 그의 마을에서 첫 번째로 학교에 간 아이였다.

이후 인도 알라바드에 있는 알라바드 대학을 졸업하고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공부를 계속하며 목회자가 되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밥 피어스 목사의 도움으로 일리노이 주의 명문 기독교 대학인 '휘튼 칼리지'를 졸업했으며, 이 대학을 다니면서 모국어인 성경을 번역했다.

그는 또 아내와 함께 대부분이 문맹인 흐마르 부족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그의 노력으로 현재는 85개 마을에 기독교 소학교가 세워졌고, 이외에 7개의 기독교 고등학교, 2개의 전문대학, 한 개의 기독교 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이 있다.

인도복음자유교회(Evangelical Free Church of India)도 설립했는데, 현재 인도 동북부 지역에 350여 개 교회를 거느린 교단으로 성장했다.

이밖에 마니푸르 지역에는 병원과 연구소를 설립, 이 지역의 빈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맥린든은 "푸다이트는 인도의 수천만 명의 빈민들의 영적, 물질적 필요에 대해 걱정했다"면서 "그의 사역은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단체의 대표 자리를 물려 받은 아들 존 푸다이트(John Pudaite)는 아버지가 해온 사역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성애·낙태 수용' 서구 자유주의 문화와 이슬람 극단주의는 21세기판 '요한계시록의 짐승'

저명한 가톨릭 지도자인 아프리카 기니아 출신의 로버트 사라(Robert Sarah) 추기경은 최근 바티칸에서 열린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총회(주교 시노드)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와 서구의 자유주의 문화는 교회가 대응해야 할 두 가지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과 같다고 말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17일 보도했다.

사라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지난 2013년 경신성사성 장관에 임명됐다.

그는 "신학적 분별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예상치 않았던 두 가지 위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짐승과 같다"면서 "이 두 가지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는 서구의 자유라는 이상에서, 또 다른 하나는 종교적 광신주의에서 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세기에는 나치-파시즘과 공산주의가 두 가지 짐승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동성애와 낙태를 수용하는 서구의 이데올로기와 이슬람 광신주의가 바로 그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라 추기경은 "서구의 세속주의는 이혼, 낙태, 동성애 등을 일으켜 가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젠더 이론(gender theory), 여성인권단체 페멘(Femen), LGBT의 로비를 보라"고 말했다.

또 "이슬람 이데올로기는 '가짜 가족(pseudo-family)'을 허용하는데, 일부다처제, 성노예, 유아결혼 등"이라면서 "알카에다, IS(이슬람국가), 보코하람을 보라"고 지적했다.

사라 추기경은 "이 두 가지 운동은 동일한 악마적 기원(demonic origin)을 가지고 있다. 보편적이며 전체주의적인 범을 옹호하고, 관용을 폭력적으로 주장하



로버트 사라 추기경 ©위키피디아

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정체를 내놓고 드러내고 있는 안티기독교 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두려움 없이 진리를 선포해야 하며, 함께 협력해서 강하고 분명하게 최고의 교도권(Supreme Magisterium, 가르침)을 드러내야 한다"며 "성직자들은 기독교인의 가정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라 추기경은 교회가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수로부터 오는 것에 동화될 수는 없으며 동화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면서 "20세기의 벨리알이 나치-파시즘과 공산주의라면, 오늘날은 서구의 동성애와 낙태 이데올로기, 이슬람 광신주의"라고 힘주어 말했다.

O.C. / 엘바인 지역

김철민 장로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모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김일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토 6:3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NEX(한국교회) 토 9:30AM-10:00PM
대형남부E-college 주일 2:00PM NEX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저지출전(사역훈련) 화-목 7:30PM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2부) 1:30pm 금요일전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화요일기도회 7:00pm 토요청년예배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인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성년부 오전 9:30, 11:30
한미대리점, 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설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형청년예배 오후 2:30

남가주 벨엘 교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18523 Arline Ave., Artesia, CA 9070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교회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이는 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j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 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새벽 예배 오전 6: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놀워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일양예배 7:3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EM 주일 오전 11:30 김일권 담임목사
금요일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중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일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 새벽 행사 기도회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6:30 AM (토)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미: 7:20 PM 성경 66권 특별성경공부

이승달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 새대를 분별하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

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복 박사 회장 주혁로 목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리세영 목사
시무간사 홍지윤 전도사

성경적목회연합회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누구든지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

1부예배 오전 9:00 P-kinder(Korean) 오전 11:00 이종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4-6) 오전 11:00
토요연합 새벽기도회 2: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엘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예배 오후 8:00 흥성준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엘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민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미부 오전 11:30
KMC(학년부) 오후 2:00

엘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 인터넷 생방송들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토요일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1:50 김민재 담임목사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714)788-3677 / www.yehind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임영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미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9: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섬김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일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조원재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8:00

하나님의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33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임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p>알파3병 + 오리지널7병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p>	<p>오리지널10병 + 미네랄 화색 소금2봉지(2LB) = \$460 \$100 No Tax</p>	<p>알파6병 + 오리지널2병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p>
---	--	---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똑똑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르니 나아.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린스처럼 사용했다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유리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가장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옴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를 후 증상이 사라짐.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경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만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인지도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주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 이부경박사 현, 건강과학연구원장, 청주교육대학 대우 교수,
[주요 저서]: <노벨상감의 건강박사>(당뇨병 치료법)외 다수.
[상훈]: 녹조근정훈장, 철탑산업훈장, 녹조근정포장 등 수여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TEL : 213 705 7778
www.GreenMWild.com . GreenMWild@Gmail.com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 C554e Colour B&W 55/55 ppm
- C454e Colour B&W 45/45 ppm
- C364e Colour B&W 36/36 ppm
- C284e Colour B&W 28/28 ppm
- C224e Colour B&W 22/22 ppm
- Dual Scan ADF 160opm Duplex
- Dual Scan ADF 80opm Simplex
- Emperor Drive!
- USB Print
- Colour Internet Fax
- Mobile Support



Simitri with Bizness *Optional : Fax & Finisher

●이슬람 바로 알기

기독교인이 알아야 하는 꾸란

이슬람은 세계 2위의 인구를 가진 종교

이슬람의 성장은 기독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문제

이슬람 이해를 위해 이슬람 경전인 꾸란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

꾸란의 계시는 바뀔 수 있어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진리라는 기독교적 관점과는 상반돼

이슬람은 세계 제2위의 인구를 가진 종교이다. 세계 정치의 변방에 있던 이슬람은 인구 증가와 함께 종교적인 부흥에 힘입어 중심으로 성장했다.

지난 1950년대에 피어슨(Lester Pearson)은 “인간은 다양한 문명이 평화로운 교류 속에서 나란히 공존하면서 서로를 배우고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경우 이 인구 과잉의 비좁은 세계는 오해·갈등·충돌·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제 한국도 다문화화를 지향하면서 다양한 인종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전환되어가고 있으며,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이슬람 인구는 눈에 띄게 성장세를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슬람이 성장하는 곳마다 기독교와의 충돌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비전통 기독교 제국으로 둘러싸인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되었기에, 항상 기독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경전(經傳)인 꾸란에 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의 어록이다.

꾸란은 모두 114장으로 이루어졌으며, 무함마드가 처음 이슬람을 시작했던 메카(Mecca)에서 받은 계시(A.D. 610-622)와 메디나(Medina)로 이주한 이후에 받은 메디나 계시(A.D. 622-632)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분량은 신약성경의 약 3분의2 정도이다. 전체 114장 가운데 90장은 메카에서, 24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내용이다. 꾸란은 각 장마다 분량이 긴 것에서 짧은 것까지 다양하다. 꾸란의 모든 장은 ‘자비롭고 자애하신 알라의 이름으로’(Bismillah-irrahmani-rahim)라고 시작한다. 그러나 9장만은 이 내용으로 시작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최후의 경고가 담겨 있고, 그들에게는 알라의 자비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꾸란 1장(개경장)은 기독교의 신앙고백처럼 전 세계 무슬림들이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할 때마다 아랍어로 배워서 암송하는 장이다. 알라에 대한 신앙, 경배, 무슬림의 도덕과 인간의 생활을 지배하는 법률 등, 이슬람의 근본을 기록한 책이다.

꾸란은 7세기 아라비아 반도의 유목민들이 사용하던 언어인 아랍어로 쓰였다. 따라서 이슬람에서는 반드시 아랍어로 기록된 것만을 꾸란이라고 한다. 다른 언어로 된 꾸란은 아무리 완벽히 번역했다고 해도 계시언어인 아랍어가 아니기 때문에, ‘꾸란해설서’라고 할 뿐 꾸란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 예로 한국어로 번역된 꾸란은 꾸란해설서라고 할 뿐, 꾸란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슬림들에게 꾸란은 지난 1400년 동안 변형되지 않았고, 처음 계시된 완벽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금지를 준다.

1. 꾸란이란 무엇인가?

꾸란은 이슬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경전이다. ‘꾸란’은 아랍어로 ‘읽다’ 또는 ‘암송하다’는 의미를 가진 ‘까이라’(qara’a)에서 파생된 단어로, ‘읽히는 것’ 또는 ‘암송해야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무슬림들은 꾸란을 알라가 인간에게 주는 마지막 계시라고 믿는다. 알라가 천사 ‘지브릴’(가브리엘)을 통해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23년 동안(610-632) 한 구절 한 구절을 계시해 준 내용이라는 것이다. 무함마드는 자신에게 계시되는 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필사를 담당하는 서기를 두고 있었는데, 그들은 대추야자 잎·돌·나무껍질과 동물의 가죽 등에 그 기록을 남겼다. 따라서 꾸란은 전적으로 무함마드

2. 꾸란의 형성과정

“무함마드는 한 손에는 꾸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정복했다”는 말은 이슬람의 정복 과정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은 될 수 있으나 사실은 아니다. 왜냐하면 무함마드가 살아 있을 때는 꾸란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함마드가 죽은 지 1년 뒤, 그의 1대 후계자인 아부 바크르(Abu Bekr, 632-634년)가 무함마드의 서기들 중의 한 사람인 자이드 이븐 타빗(Zaid ibn Thabit)에게 꾸란을 편집하는 일을 맡겼다. 그 이유는 634년에 치른 야마마(Yamamah) 전투에서 꾸란 암송자들이 많이 죽었으므로, 꾸란 암송자들이 모두 사라질까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다.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 부카리(Bukhari)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



유해석 선교사
FIM국제선교회 대표

다. 아부 바크르가 자이드에게 “너는 배운 젊은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믿는다. 알라가 선지자에게 주어진 계시를 적고 꾸란을 찾아서 모으라”고 말했다. 자이드는 모든 꾸란 구절들을 찾기 시작했으며, 꾸란 4장 12절을 마지막으로 모두 찾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아부 바크르가 꾸란을 하나로 모으라고 말하기 전까지 꾸란은 하나의 온전한 형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이드는 수집된 꾸란을 아부 바크르에게 건네 주었고, 그가 보관 하다가 2대 후계자인 우마르(Omar b. al-Khattab, 634-644)에게 맡겼다. 우마르가 죽은 후에 무함마드의 부인이자 우마르의 딸인 하프사(Hafsa)가 보관했다.

그런데 꾸란이 계속 암송되면서 오류 혹은 변형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당시 아랍어에는 사투리가 많이 있었는데, 꾸란에 기록된 사투리로 인하여 혼란이 생겼다. 따라서 3대 후계자였던 우스만(Othman b. Affan, 644-656)은 하프사에게 원본을 달라고 명령했고, 그 원본을 가지고 자이드에게 의뢰하여 무함마드의 부족인 쿠라이쉬(Quraish)에서 선출된 3명과 함께 교정본을 만들게 하였다. 우스만은 세 명의 쿠라이쉬 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꾸란의 내용에 대하여 각 개인의 의견이 다르거나 너희 3명과 자이드와의 의견이 다르다면, 반드시 쿠라이쉬 방언으로 된 것을 채택하라. 왜냐하면 알라에게서 온 계시는 쿠라이쉬 방언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이 내용에 의하면 원본에서 교정본이 만들어지기 부분이 고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교정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이드는 무함마드에게서 직접 들었으나 원본에 기록되지 않은 구절을 기억해서 교정했다. 우스만은 교정본을 이슬람 제국 곳곳에 보내면서 다른 꾸란은 모두 불태우도록 했다. 그러나 모든 사본이 불탄 것은 아니었다. 남은 사본들을 살펴 보면, 오늘날의 꾸란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꾸란이 처음 정경(正經)으로 인정된 시기는 무함마드가 처음 꾸란을 전파한 지 163년이 지난 뒤인 A.D. 773년이다.

3. 꾸란의 변질

꾸란은 알라에게 불변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것은 알라는 그가 한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구속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슬람의 알라는 새로운 계시가 있을 때마다 이전의 계시를 변경하고 폐지한다. 즉 꾸란에서 알라는 이전에 계시한 것을 변경할 수 있고, 모든 계시를 취소할 수도 있다(꾸란 17:86). 꾸란은 반복적으로 알라가 이전의 계시를 폐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하기를 망설이지 않는다(꾸란 2:100). 따라서 꾸란의 계시는 수시로 바뀐다. 꾸란 53장을 살펴보면 무함마드의 관점이 더 강력한 일신교로 변화됨에 따라, 그가 메디나의 신들에 관련하여 그의 계시를 어떤 방식으로 수정했는지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식에 대한 율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꾸란에 나타난 ‘알라의 도덕적 율법’이 바뀌기도 한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진리’라는 기독교적 관점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진리인 이유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꾸란이 말하는 ‘나중에 받은 계시에 의하여 먼저 받은 계시가 취소됐다’는 교리가 이슬람의 ‘나시크(Naskh)’다. 예를 들면 과부에 대한 내용 가운데, 과부가 된 지 1년 안에 재혼이 금지되어 있다(꾸란 2:240). 그런데 같은 꾸란 안에 과부가 된 지 4개월 10일 안에 재혼이 금지된다는 기록이 있다. 이런 경우에 시 간상으로 나중에 받은 계시가 먼저 받은 계시를 사멸시킨다. 이 경우에는 4개월 10일 후에 재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중에 기록된 것이기에, 1년 안에 재혼이 금지된다는 구절은 사멸되는 것이다. 이처럼 계시의 변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나시크 교리가 생겨났다. 이에 대해 꾸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알라가 그대에게 계시한 것을 거두어 갈 수 있나니 그때에 그대는 보호할 어느 것도 발견치 못하리라(꾸란 17:86)”

메카 지역에서는 무함마드가 포교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종교에는 강요가 없나니”(꾸란 2:256)는 종교가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말한다. 그런데 이 내용은 메디나 지역으로 오면서 바뀌게 된다. 메디나로 온 무함마드는 칼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메

카로 가는 대상(隊商)들을 공격하게 했다. 그 후에 종교에는 강요가 없었던 “평화의 계시”는 “칼의 계시”로 바뀌었다. 무함마드는 군사적으로 약할 때에는, 꾸란을 통해 불신자들을 용서하고 싸우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무함마드의 군대가 강해졌을 때, 그는 이 구절들을 폐하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불신자들과 싸우고 살육하라고 명령했다. “금지된 달이 지나면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들마다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할 것이며...”(꾸란 9:5) 이 칼의 계시는 앞서 받은 124개의 구절들을 폐기시켰다.

무력을 통한 포교 전략은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메카에서는 종교의 차이를 인정하고 평화를 이루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무슬림은 ‘성서의 백성’(유대교인과 기독교인)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주장(꾸란 29:46)했다. 그러나 메디나에 오면서 다음과 같은 구절로 바뀐다. “알라와 내세를 믿지 아니하며, 알라와 메신저가 금지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진리의 종교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에게, 비록 그들이 성서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함복하여 지즈야를 지불할 때까지 지하드를 하라 그들이 스스로 저주스러움을 느끼리라”(꾸란 9:29). 이 구절들에 의하여 기독교인과 유대인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이다. 꾸란의 계시는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었다.

이슬람 초기에 무함마드가 사탄의 계시를 받았다는 하디스의 기록도 있다. 그것은 메카의 쿠라이시(Quraish) 부족과 타협하기 위하여 메카의 부족신이던 알라에게 ‘세 명의 딸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계시였다. 무함마드는 아랍 예언인 라트(Lat), 웃자(Uzza), 마나트(Manat)를 알라의 종보자로서 경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후에 이 계시가 돌연 취소됐다. 그 이유는 무함마드 자신이 사탄의 계시를 받았기에 알라에게 혼이 났고, 그 계시가 취소되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인도계 영국인 작가였던 살만 루시디(Salman Rushdie)가 『악마의 시』(The Satanic Verses)라는 책을 썼는데, 이로 인하여 무슬림들에게 20년 이상 살해의 위협 속에 지내게 됐다. 또 그 책을 번역한 사람들이 일본과 이탈리아에서 살해당했다. 이슬람의 법학자들도 어떤 것이 무효가 되었고 어떤 구절이 어떤 구절을 대체했는지 모른다. 다만 225개가 폐지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제24차 1일 신약통독

목회자 신약통독

하루에 신약 27권 완독

이민목회에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오직 말씀으로 하루를 드리길 원합니다.
신약 27권 260장 전 절을 통독 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영과 육이 새롭게 힘을 얻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5년 11월 3일(화) 오전 8시(시간엄수)

장소 헐리웃효순장로교회 (담임 김동원 목사)
1101 S. Elden Ave. L.A., CA 90006 (213)268-3589

참가비 없음(식사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강사진

 안성기 목사
  이화철 목사
  김동원 목사

교회 찾아오시는 길
(213)268-3589

1101 S. Elden Ave. L.A., CA 90006
올림픽경찰서 동쪽(11가와 엘덴이 만나는 곳)



주최: 미주요한선교단 (대표 안성기 목사)

후원: 갯스윌연합교회 기독일보 헐리웃효순장로교회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수도원에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

요헨 차이츠, 안젤름 그른 | 분도출판사 | 296쪽

'세계적인 영성가이자 수도원의 재정 담당자'와 '18년간 다국적 대기업을 이끌어 온 경영자'가, 성공과 책임, 경제와 복지, 돈과 양심, 문화와 가치 등 삶의 근본이 되는 주제들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전혀 다른 위치의 두 저자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동의 이상을 갖고, 이를 실현할 방법을 준비한다.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기업, 더 나은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책.



이신칭의

앨리스터 맥그래스 | 생명의말씀사 | 240쪽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 방법, "이신칭의" 16세기 주요 논쟁점이었던 이신칭의는 오늘날 화석처럼 취급되고 있다. 교회와 신학교에서조차 이신칭의 교리를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있다. 21세기 최고의 천재 신학자로 평가받는 현대 복음주의 신학자 앨리스터 맥그래스는 특유의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관점으로 "이신칭의"의 성경적, 역사적 배경과, 오늘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전하고 있다.



가슴뛰는 선물

임부웅 | 두란노 | 216쪽

산상수훈 중 마태복음 5장 강해서이다. '팔복'이라는 파격적 가르침을 시작으로, 이 팔복의 관점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들려 준다. 책은 팔복을 여덟 개의 계단으로 된 사다리에 비유하면서, 사다리를 오르듯 각 가르침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사는 삶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오늘 대한민국을 설교하라

박영근 | 생명의말씀사 | 216쪽

설교는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그분'과 오늘 대한민국의 '나'를 이어주는 것이다. 성도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찾아 교회에 온다. 그러나 강단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혹은 아주 먼 훗날 하늘나라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않은지...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진정한 설교란 오늘 이 땅에서 성도다운 삶이란 어떤 것인지 알려 주어 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상황을 뛰어넘는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오늘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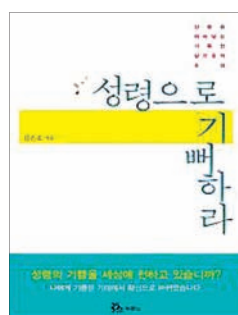
“오늘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었나? 성령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가?”

삶이 평안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기쁨은 성령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은 환경이 아니다. 오직 은혜다.

절망적이고 어지러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때에 우리 삶에서 기쁨을 되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때론 삶이 평안해도 그 마음에는 공허함뿐이거나 기쁨이 담겨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디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찾아야 하는지 막막해지기만 할 때에 주님이 보여주는 행

복과 기쁨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향해야 한다. 그럴 때 따라오는 깨달음은,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기쁨은 오직 성령뿐이라는 것이다. 성령이 임할 때만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책은 2015년 '여호와의 기뻐하라'라는 주제로 요르단교회 강단에서 전했던 진정한 기쁨에 대한 설교를 엮은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닌, 성령으로 기뻐하라는 그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충만한 기쁨을 만나게 된다.



성령으로 기뻐하라 김은호 두란노 | 248쪽

이 책은 제1부 기쁨의 방향성을 정하라. 제2부 기쁨의 역설을 인정하라. 제3부 기쁨의 회복을 경험하라. 제4부 기쁨의 은혜를 누리라 등

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프롤로그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맛볼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안다면 결코 헛헛한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독자들 역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엡 5:10 참조) 분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라고 했다. 김은호 목사는 위기에 빠진 한국 교회에 건강한 예배와 교회 연합을

제시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기쁨의 목회자다. 그는 부흥하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크리스천 교육기관인 '꿈이 있는 미래'를 통해 이 땅에 거침없는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회철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 요르단교회는 1989년 상가 한 칸에서 개척, 이제는 장년 출석 1만 4천 명을 넘어서는 대형교회가 되기까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영혼들을 돌보며 주님 주신 기쁨을 찬송하며 달려가고 있다. 저서로는 《무릎으로 승부하라》, 《땀큐 바이러스》 등이 있다. 이영인 기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겨울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5년 겨울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 신학 대학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 일반 대학교**
 -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 홀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홀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홀스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의 홀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홀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 * 이번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5년 9월 21일(월) ~ 11월 27일
 겨울학기 개강일 : 2015년 12월 07일(월) ~ 2월 12일
 봄 학기 개강일 : 2016년 2월 15일(월) ~ 4월 22일
 여름학기 개강일 : 2016년 5월 16일(월) ~ 7월 22일

겨울학기 등록 안내 : 2015년 12월 7일 까지 등록 마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창세기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다

최초 소개되는 창세기 강해집
창세기는 성경의 모판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 많아



아더핑크 창세기 강해
아더 핑크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430쪽

크리스찬다이제스트의 '아더 핑크 클래식' 제3권인 <아더 핑크 창세기 강해>는,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저자의 창세기 강해집이다.

20세기 유명 기독교 작가이자 성경 연구가인 아더 핑크(Arthur W. Pink, 1886-1952)는 창세기 50장 전체를 총 46장으로 나눠 살피고 있다. 영국 태생의 평범한 사업가였던 그는 22세에 회심하고 미국 무디성서대학에서 공부한 후 미국과 호주·영국을 돌며 복음주의와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 설교 사역을 펼쳤다.

저자는 창세기에 대해 "성경의 모판으로, 거의 모든 위대한 교리들이 싹의 형태로 나타난다"며 "창세기에서 하나님에서부터 삼위일체, 인간, 사탄의 간계와 주관적 선택, 구원, 이신칭의, 신자의 안전과 분리

의 진리, 징계와 기도, 승천과 성육신, 구주의 죽음과 부활과 승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적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미래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등이 모두 나타난다. 이 모든 것은 창세기의 신적 저작권을 증명하는 놀라운 증거들"이라고 설명한다.

창세기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인 아담부터 아벨,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등 7명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핑크는 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을 쉬지 않는다.

그는 제2장 '창세기 1장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진리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황금 문을 여는 열쇠로, 창세기 첫장 속에는 그리스도와 관련한 것들이 많이 있다"며 "(창조 기사) 첫째 날 역사 속에 신적 성육신이, 둘째 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셋째 날 주님의 부활이, 넷째 날 주님의 승천이 차례로 상징적으로 제시된다"고 전하고 있다.

또 요셉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을 이름의 의미, 일의 성격, 약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나이에 대한 관계, 채색옷, 형들의 미움 등 7가지로 설명하면서 101번까지 번호를 붙여 설명한다.

'아더 핑크 클래식 시리즈'는 1·2권 요한복음과 산상수훈 강해가 지난 2010년 발행돼 최근 개정판이 나왔고, 향후 주석집으로만 발행될 예정이다. 이대웅 기자

한국의 '토박이 신앙' 그 맥과 즐기기



토박이 신앙산맥 1
전택부
홍성사 | 234쪽

탄생 100년 '전택부 선집' 첫 권
한국기독교교회의 '사도행전'
자생적 '토박이 신앙'의 근원 추적

이지만 내 나뉠의 사관 때문에 무엇이나 구애받지도 않았다"고 털어놓는다.

한글학자이자 '영원한 YMCA맨'으로 불린 故 전택부 장로는 1915년 함남 문천에서 태어나 15세 때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함흥 영생중을 졸업하고 일본으로 떠났으나 도쿄 일본신학교(現 일본신학대)를 중퇴하고 고국으로 돌아온다. 이후 YMCA를 기반으로 종교·사회운동을 펼쳐왔으며, 한글날 국경일 복원운동 등 한글 사랑 운동에 앞장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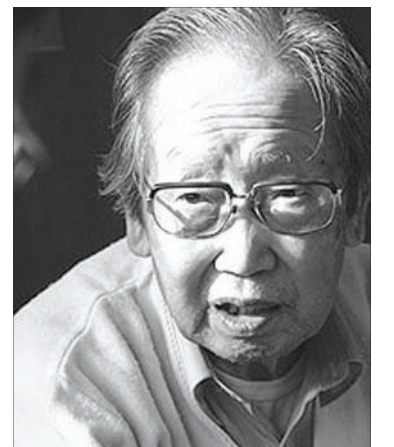
특히 6·25 전쟁으로 회관마저 파괴됐던 YMCA를 9명의 직원들과 모금운동을 시작해 재건한 공로자로, 1962-1975년 서울YMCA 총무(現 회장)를 지냈다. 은퇴 후에도 서울YMCA 명예총무를 맡았고, 1978년 한국기독교청년회 운동사(1903-1945)를 쓰며 YMCA 역사를 정리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월간 <새빛>과 <사상계> 주간을 지냈다.

홍성사는 "어른의 경륜과 지혜가 필요하지만 실상은 그리 주목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으려는 세태를 바로잡고, 그분들의 소리를 담아 간직하고자" 전 10권의 '시인 구상 선생 선집'을 2002-2010년에 걸쳐 간행한 이후, 두 번째로 '전택부 선집'을 출간한다.

전택부 선생의 저작물 중 전 3권의 <토박이 신앙산맥> 외에도 <강아지의 항변>, <무슨 재미로 사나>,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한국예큐메니칼운동사>, <세상은 달라진다>, <부부의 심계명>, <달을 쏘는 아이>, <남기고 싶은 종로 이야기>, <자화상을 그리듯이(전 3권)>, <월남 이상재의 생애와 사상>, <양화진 선교사 열전> 등 14종 18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대웅 기자



故 오리 전택부 선생

초대교회처럼, 한국 교회 '다시 복음 앞으로'

유기성 목사의 교회 성숙 메시지
사도행전 설교집



주 임재 안의 교회
유기성
예수전도단 | 280쪽

"온 교회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흥미롭고 설레는 일입니다."

<주 임재 안의 교회>는 유기성 목사의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모은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교회로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바로 세워야 할까?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 교회의 현실에 대한 비통함과 회복의 갈급함 속에 유기성 목사는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이 책의 제목인 '주 임재 안의 교회'이다.

서문에서 유기성 목사는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어떤 면을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결코 아무 문제가 없던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 문제가 많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초대교회에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주님의 강한 임재 안

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는 사도행전 속 초대교회를 교과서 삼아 지금 한국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믿음의 실험을 제안한다.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복음에서 멀어진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로의 회복이며, 그 회복의 주체가 주님이 공동체가 곧 초대교회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실제로 선한목자교회가 산적한 위기 가운데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과정에서 담임목사로 부임한 저자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거쳤다. 사도행전을 교과서로 믿음의 실험을 통과한 선한목자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버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교회로 성숙해졌다.

저자는 이 책의 열다섯 편 설교에서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열심만 있는 종교생활, 율법주의 신앙생활로 인해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드문 지금, 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부흥의 핵심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한다.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인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의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0,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3.7.21

재능계발캠프

Super Brain Power

6 Keys to unlocking your hidden geniu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3.7.21

힐링캠프

행복을 찾아서
내 몸을 깨끗하게

텐트, 자연치료
디톡스, 별 보기
유황 온천, 두드림

1 Train and value all your intelligences.

내가 가진 모든 지능을 계발하고 소중히 여긴다.

2 Make greater use of any intelligence you are already tapping.

이미 계발하고 있는 지능이 있다면 더욱 활발하게 이용한다.

3 Appreciate just how smart you really are: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인정한다.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USA Tel:(949)329-8222

Email:shelby.moon65@gmail.com www.MyIvydream.com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우드 제작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시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제책, 번역등전체 전문
www.junimedia.com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영범음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서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서디영범음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 1,000set(\$180)
고급양공 실교서 1set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용서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에 구비되어 있으나 불사자를 발송할시와 더욱 다양한 상품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툰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PRO-Z USA Inc.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인 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골든씰 Golden Seal 천연연황생제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격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탄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Some 650 college students from eight different campuses gathered for KCM's second annual Gospel Renewal Night on Saturday.

KCM Collegians Reflect on the Beauty of the Gospel

BY RACHAEL LEE

"At your young, ripe age, how do you define and discern beauty?"

Such was the question posed by Reverend Harold Kim, the senior pastor of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to an audience of some 650 Kor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on Saturday.

The students were gathered for Korean American Campus Mission (KCM)'s second annual Gospel Renewal Night, one of the largest inter-campus events of the ministry and the first major event of the school year. KCM is a Korean American college ministry of Southern California and has a presence in eight college campuses.

Kim was featured as the main speaker of the event, which took place at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this year. Worship was led by All Nations Church's worship team, and Young Park, the chief of staff at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shared his testimony.

A video was shown towards the beginning of the event, and had various cuts of people, nature, and other scenes, with a voiceover that discussed how something could be described as beautiful. The video

set the tone for the night -- a night that focused on beauty.

Indeed, Park's testimony, as well as Kim's sermon, emphasized the fact that Jesus redeems what could be considered far from beautiful -- mistakes, hurts, and scars -- to become truly beautiful.

Park shared that after becoming a believer in high school, he started serving vigorously in church, eventually going to seminary and serving at church as a pastor. However, he described himself as having been "self-righteous and arrogant" at the time, serving not to pursue God but to pursue himself. Eventually, Park decided to step down from his ministerial position from burnout, and soon thereafter, he stopped attending church on a regular basis. He then married a woman with no counsel or guidance from anyone else, which ended in a divorce after two years. He expressed regret as he said during that time, he "forgot how to be transparent," "didn't seek counsel," "avoided community," and was "unable to lead or help [his wife] spiritually."

But Park's story did not end there. Park said after these progression of events, he felt deep shame about what had happened

in his life. However, the people around him -- his parents and friends -- embraced him as he was. And it was at that point in his life that he understood that "the gospel covers his shame," and that "God restores and rebuilds when we submit to him," he said. He is now once again an active part of his local church, has been remarried for five years, and has a son and an adopted daughter.

"God redeems the hurts," Park said, swallowing tears. "He is never early, never late. He is always on time."

Reverend Harold Kim's sermon was focused on the beauty of Jesus. He said that in his day, people found in Jesus "a beauty that no one expected." His divine beauty, Kim said, was in his sufferings and his scars.

"Jews at the time would have said yes and amen to Isaiah 52:13," Kim said, referring to a verse that says the Messiah will be "raised and lifted up and highly exalted."

"Isaiah starts this way but takes a radical turn," he continued. The very next verse describes the Messiah as one whose "appearance was so disfigured beyond that of any man and his form marred beyond human likeness," and that

"many were appalled at him." The next chapter describes Jesus as having "had no beauty or majesty to attract us to him, nothing in his appearance that we should desire him.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by men, a man of sorrows, and familiar with suffering."

The fact that Jesus' beauty lies in his sufferings, Kim said, has implications for us as well.

"Everyone is scarred," Kim said. "But in 2 Corinthians 4:16-18, the Apostle Paul tells us that all of the scars -- the hurt, abuse, rage, trauma, affliction -- can prepare for us an eternal glory. Jesus will take every pain and those things will be the means for future glory and beauty."

Kim said that Young Park, who shared his testimony, "looks far more beautiful and more like Jesus today -- not in spite of, but because of what he went through."

"It's in and through the scars that Jesus will sanctify and purify you. The astounding thing about Jesus is that he chooses to keep the scars [from the cross]. Why? He just rose again from the dead, couldn't he have gotten rid of the scars? But even for Jesus, the scars became a part of his eternal beauty and glory."

Domestic Violence Organizations Hold Hands

BY RACHAEL LEE

A coali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offer social services for Korean America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ll over the U.S. was officially launched on Tuesday. Called the National Korean American Coalition to End Domestic Abuse (NKACEDA), the coalition hopes to make resources more readily and easily accessible through its united efforts.

Seven organizations are a part of the coalition thus far, including the Center for the Pacific Asian Family, Korean American Coalition to End Domestic Abuse, and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on the West Coast; Asian Services in Action, Inc. and KAN-WIN in the Mid West; Asian Family Support Services of Austin in the South; and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 on the East Coast.

"Many of the [hotline] calls that we get are not only from people within Southern California, but also people in the East Coast and the Mid-West who are wanting to connect with Koreans and Korean speakers," said Jennifer Oh, the domestic violence program manager of KFAM. "But our services for people out of state are limited."

The different organizations also offer different services as their focuses are slightly different, coalition organizer said.

"We're looking forward to better serving the community with by bringing together our various different services," said Connie Chung Joe, the executive director of KFAM.

The coalition plans to collaborate on these services, offer training to one another, and network through regular meetings via webinars and conferences.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nkaceda.org.

Stepping into New Opportunities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Pastors, XXI: Reverend Tim Park

BY RACHAEL LEE

When Reverend Tim Park first stepped foot on the campus of Evangelical Free Church of Diamond Bar in 2011, he didn't imagine he would become its next lead pastor almost four years later.

Park's journey in EFree Diamond Bar, a multi-ethnic, multi-generational church of some 500 members, began when he was hired as its Associate Family Ministries Pastor. After having served as an English ministry (EM) pastor at a Korean immigrant church (LA Hanmi Church) and as the lead pastor of a church with mostly Korean American members (Living Faith Community Church) for many years, Park said he felt he was ready for a change in context.

"For about a year, I was in transition, waiting for God's direction for the next step," Park said, describing the period after the leaders and congregation of Living Faith Community Church decided to close its doors in 2010. "I really sensed this strong calling toward being a part of a multi-ethnic church."

It was at that time a neighbor told Park about an opening at EFree Diamond Bar for a part-time family ministries position.

"I think God was really working," Park said. "This church was ready to find someone to invest in the growing young families ministry here, while I was ready to try a completely different context of ministry."

This readiness allowed Park to be a great "fit," as he put it, for the church, and the church a great fit for him and his family.

From day one, Park said, he and his family "felt loved and embraced by everyone" in the congregation. Even today, members of the congregation approach Park on a reg-

ular basis, hugging him and telling him how much his message had touched them.

One of the aspects of ministering at EFree Diamond Bar that Park has loved most is learning ministry in "a multi-faceted way."

"I've had to minister to a very diverse people from very different cultures, different age groups, and different socioeconomic backgrounds," he said. "God has taught me so much during my years as an associate here."

But Park said the shift in context -- from a homogenous context to a multi-ethnic one -- did present some challenges as well in the beginning.

"For example, food, style of ministry -- there were certain things that we did in the Korean American context that didn't translate into the multi-ethnic context, and vice versa," Park said.

But the most difficult challenge he faced was his own internal struggle, Park said.

"The biggest challenge I had to overcome was my own sense of insecurity of being in a context I had never experienced in the church setting," Park explained. "It was just my own challenge of adjusting to that. But otherwise, the church itself has always been embracing and warm toward our family."

Fast forward to three years later in late November of 2014. Leading up to this time, Park had already been sharing the pulpit with Reverend Mark Hopper, who was the senior pastor of EFree Diamond Bar at the time, on "almost a 50-50 basis," according to Park. It was at this point that Hopper approached Park with the idea of passing on the lead pastoral role to him.

"I felt absolutely honored that he would entrust a church that he has been pastoring for 27 years,"

Park recalled. "Pastor Mark was the pastor that developed the culture of the church. It's a very loving congregation, very down to earth, very simple. Pastor Mark has a big shepherd's heart, and that's the congregation he's fostered. I was really humbled -- completely humbled -- that he would entrust to me what he had built up."

Before approaching Park, Hopper first discussed the matter with the elder board, who approved of Hopper's ideas for transition. Park then went through a process of informal interviews, after which the congregation was notified first by mail, and then verbally during Sunday services.

After a period of allowing the congregation to think, pray, and ask questions about the transition, the church held a vote. The congregation's support was significant -- the members voted only one vote shy of unanimously being in favor of Park's assumption of the senior pastor role.

Park officially took on the baton -- literally -- for the senior pastor role in September. During the transitional services on Sunday, August 30, Hopper presented Park with an actual baton with an inscription of a Bible verse and a description of the process of the transition.

In light of his experiences, Park said that he was grateful he took the opportunity he had to start at EFree Diamond Bar as the Associate Family Ministries Pastor.

"In some ways, it could've been easy or convenient for me to go back to a Korean American context," Park said, describing the period he spent considering various options before coming to EFree Diamond Bar. "Any time a position in a Korean American church was available, people came knock-



Reverend Tim Park is the lead pastor of Evangelical Free Church of Diamond Bar, CA.

ing on my door often. But in all of those years [serving in the Korean American context], I talked about wanting to minister to people multi-culturally -- but in the end, the congregation reflected the staff, and every one of those staff members were Korean American. If God was calling me to the homogenous context, that would've been fine. But I felt I wasn't being true to what I was being led to."

"And when I first came here, the associate position was a part-time position, and I could've easily just looked for another full-time position instead," he continued. "But my wife and I were convinced that this church was the right fit for us."

Park added that he has been observing an increasing amount of opportunities for Asian American pastors to take leading roles in traditionally Caucasian or multi-ethnic churches, and encouraged younger pastors to expand their options beyond the Korean immigrant or Korean American contexts.

Within the Evangelical Free Church of America (EFCA) alone, which was traditionally homogeneously Caucasian, more and more Asian American pastors have been assuming leading roles, including

Rev. Mark Lee who was sent to plant Vantage Point in Eastvale, CA; Rev. Ryan Kwon who leads Resonate Church in Fremont, CA; and Rev. Ray Chang, who leads Ambassador Church in Brea, CA and also heads the Asian American division in the EFCA.

The growing efforts to diversify the churches' leadership also has led to a growing number of Asian American families being willing to settle into these local multi-ethnic churches, Park said. Within the time frame that Park was at EFree Diamond Bar, he said he has seen an increasing number of Asian American families who came to the church after having commuted long distances to primarily Asian American churches.

"There's a growing desire for these Korean American young families to find a church that's local, a community church where they can invite their friends to be a part of," Park elaborated. "And this goes hand in hand with traditionally Caucasian churches wanting to diversify."

"These opportunities are growing for Korean American pastors, beyond just the traditionally homogenous ministry," Park added. "It's up to them to discern what would be the best fit."

www.e-nca.org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오픈 하우스
11월 5일 (목) 저녁 7시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2,048점 기록(전미주 평균 1,500점)
- 지난 15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타학교생도 환영)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운영(월 \$75~\$150 정도의 경제적인 비용)
- 전교생에 개인 랩탑 컴퓨터 수업(교과서 대체 및 방과 후 온라인 수업 보강)
- 토론 위주 수업으로 학생의 발표력, 창의성, 협동심 강화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입학 문의

(213) 400-3588
(213) 487-5437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